

대학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과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강현구 · 이운석 · 김달영

서울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

투고일(2008년 10월 17일), 수정일(2008년 11월 5일), 게재확정일(2008년 12월 9일)

목적: 관련 이익 집단의 대학 안경광학과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와 운영형태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대상 및 방법:** 현업 안경사 집단 50명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한 의견과 예상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효과, 업무 허용범위,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집단별 통계를 분석하였다.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학 부설 안경원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부설 안경원을 통한 임상실습교육으로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검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한국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운영은 임상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설립을 위하여 법률적인 제도 개선과 각 대학 안경광학과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요청된다.

주제어: 대학부설 안경원

서 론

대학 안경광학과에서 수행되고 있는 교육과 연구는, 궁극적으로 임상에서 환자의 굴절이상과 시기능 이상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학(광학), 생물학 등의 기초교육과 더불어, 실제 환자를 검안하고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임상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학 안경광학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안실습 교육은, 대학 내에 안과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대학을 예외로 하면, 교내 수업 시간중에 실시되는 수강자 집단 내에서의 검안실습이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외 안경원 실습과목 수업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대학 안경광학과와 안경원 현장 실습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은 현장 임상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기존의 현장 실습 교육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경광학 분야와 달리,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간호학 등의 여타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교육기관에 부설된 대학 병원/치과병원/한의학병원/동물병원 등을 통하여 재학 중에 다양한 증상의 실제 환자와 고객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 부설 의료기관들은 연구의 측면에서도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환자군을 제공하여, 대학의 교수진에게 수준 높은 임상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국내 안경광학 연구는 연구대상이 다양하지 못하며, 특히 대학에서 이루어진 임상연구의 경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20대 대학재학생으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안경광학의 교육이 발달되어있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는^{2,4}, 대학 부설 eye clinic 또는 eye center의 설치가 활성화되어 있어, 재학생과 연구진에게 광범위하고 수준 높은 임상실습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대학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여러 이해관련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노원구와 구로구 일대에 소재하고 있는 안경원의 현업 안경사 50명과, 일반인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

반인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 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는 설문문에 응한 안경원을 방문한 일반 고객과 해당 안경원에서 실습중인 안경광학과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의 나이와 성별,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업 안경사 집단과 일반인-안경광학과 재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현업 안경사 집단은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으로 인하여 안경원의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인데 반해, 일반인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집단은 주로 긍정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설문문에 사용된 설문지의 예제는 논문의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연구결과

1. 현업 안경사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현업 안경사들은 안경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 항목에 대해 안경사 스스로의 직업의식 함양(35명), 검안사와 같은 선진 제도의 도입(30명), 대학 교육의 내실화(18명), 대학 부설 안경원등 교육제도의 다각화(14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안경사 스스로 직업의식함양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복수 응답에서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제도의 다각화를 지적한 현업 안경사의 비율도 28%에 달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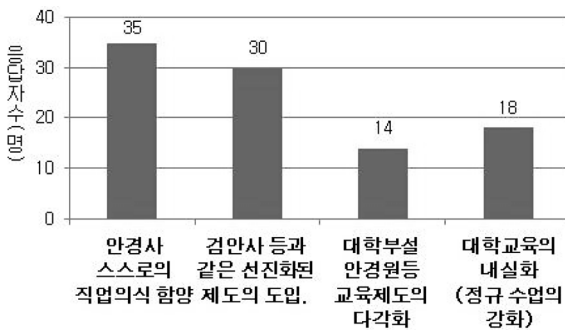


Fig. 1. Opticians' opinion abou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a rise in social position of Korean Optic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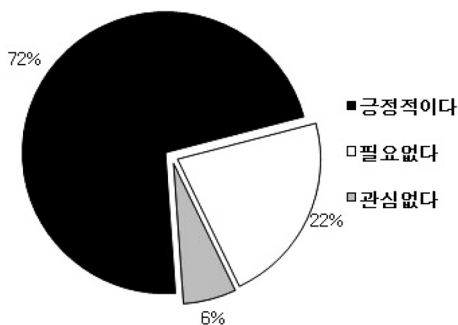


Fig. 2. Opticians' opinion about the university /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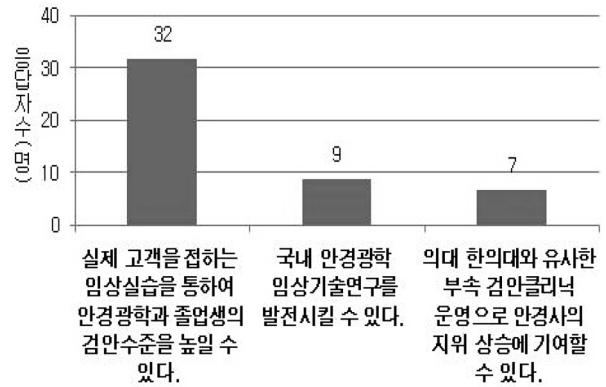


Fig. 3. Opticians' opinion about the reason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re required.

있다.

설문 서두에 대학부설 안경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삽입하고 실시된 설문에서 현업 안경사들은 대학부설 안경원의 설립에 대해 72%나 되는 높은 비율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예상과 달리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한 필요성을 현업 안경사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실제 고객을 접하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검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업의 안경사들은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치 운영을 통해 예비 안경사들의 현장임상검안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이 불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안경원은 현재 포화 상태인데 대학마저 부설 안경원을 설립한다면 더욱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응답이 10명으로 가장 많아서, 대학 부설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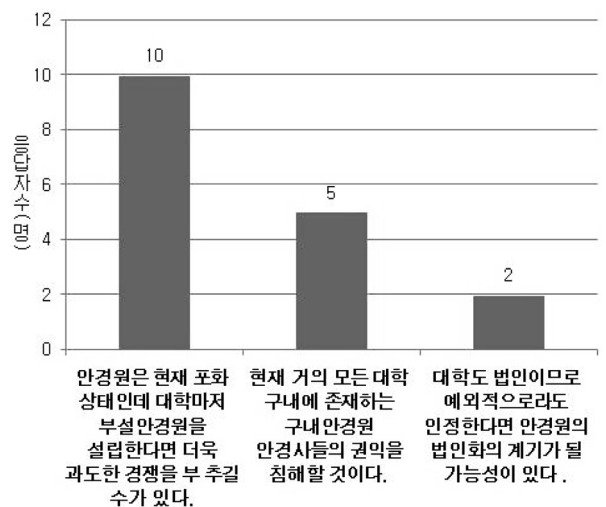


Fig. 4. Opticians' opinion about the reason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re not requi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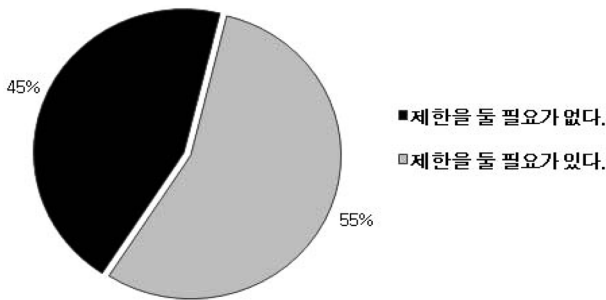


Fig. 5. Opticians' opinion about service range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원이 기존 안경원에 상권을 침해하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들이 기존 안경원의 상업적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필요 없다’는 답변이 26명(55%), ‘필요 있다’는 답변이 21명(45%)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졌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대학 주변 안경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업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안경테 판매와 조제가공 업무를 제한하고, 임상교육과 연구에 필수적인 검안 부분으로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안경테 판매나 조제가공 등의 영리업무를 제한한다면, 대학 부설 안경원의 운영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예산으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25명(73.5%)으로 ‘(선진국처럼) 검안·피팅 비용을 징수 하여야 한다’는 9명(26.5%)의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 외국처럼 검안·피팅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는 것이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 부설 안경원을 설립한다면 그 위치는 ‘안경광학도가 있는 학교의 캠퍼스 내로 한정 해야한다’는 응답이 38명(78%)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와 ‘어디든 상관없으며 고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변화가 등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낮은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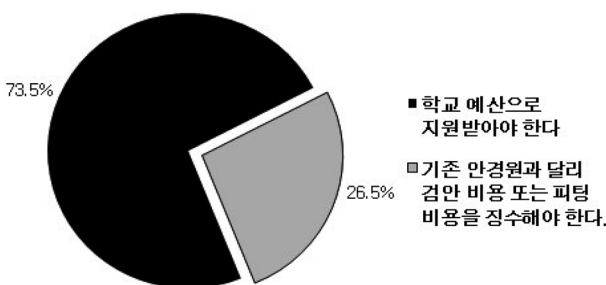


Fig. 6. Opticians' opinion about how to obtain costs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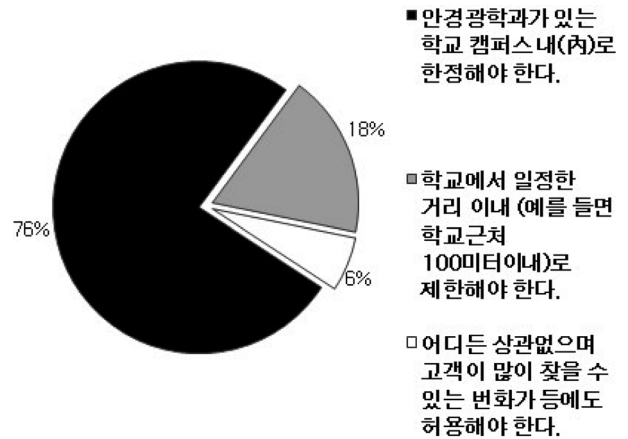


Fig. 7. Opticians' opinion about spatial position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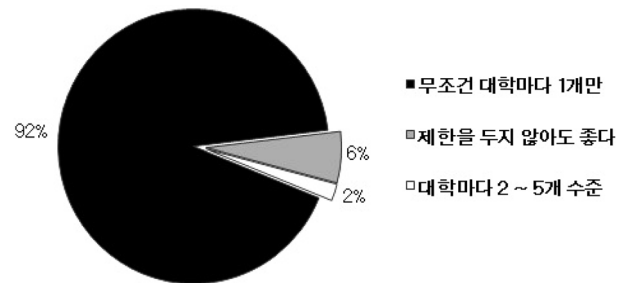


Fig. 8. Opticians' opinion about how many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can be permitted.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업 안경사 집단이 대학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존의 안경원 상권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허용 개수는 ‘무조건 대학마다 1개만’이라는 의견이 46명(92%)으로 압도적이었다. 이 의견은 Fig. 4의 ‘안경원은 현재 포화 상태인데 대학마저 부설 안경원을 설립한다면 더욱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가 있다’는 반대 이유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현업 안경사들은 대학 부설 안경원에 의한 기존 상권의 침해를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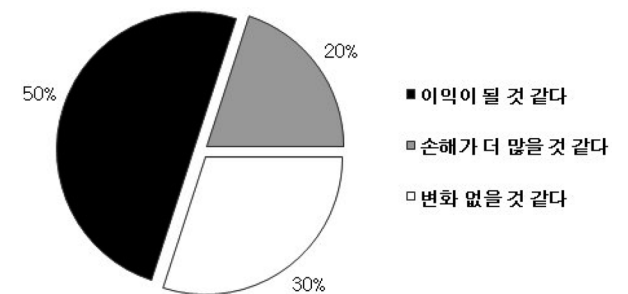


Fig. 9. Opticians' opinion about effects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on Korean eyeglasses society.

대학 부설 안경원이 안경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익이 될 것 같다.’가 50%로 나타났고 ‘손해가 더 많을 것 같다’는 2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서, 기존 안경원의 상업적인 이익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업 안경사 집단이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인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집단의 설문 결과 분석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등이 생각하는 안경사의 지위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는 ‘검안사와 같은 선진화된 제도의 도입’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답변이었고 ‘대학부설 안경원등 교육제도의 다각화’가 20명으로 두 번째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인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은 현역 안경사 집단에 비해 대학 부설 안경원 제도의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한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집단의 의견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 84.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의견은 불과 3.9%에 그쳤다.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현업 안경사 집단보다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집단이 현업 안경사 집단에 비해 기존 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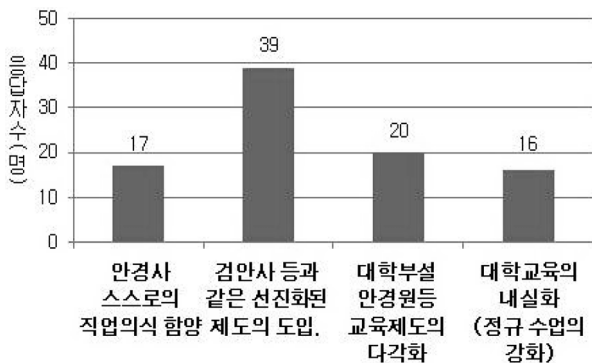


Fig. 10. Public opinion abou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a rise in social position of Korean Optici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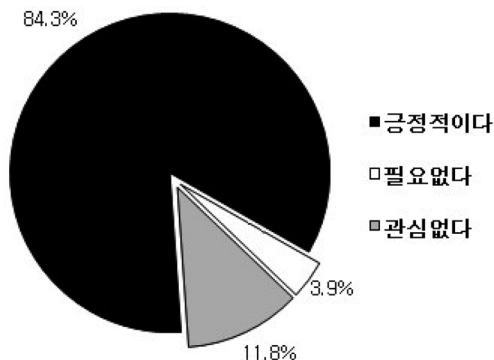


Fig. 11. Public opinion about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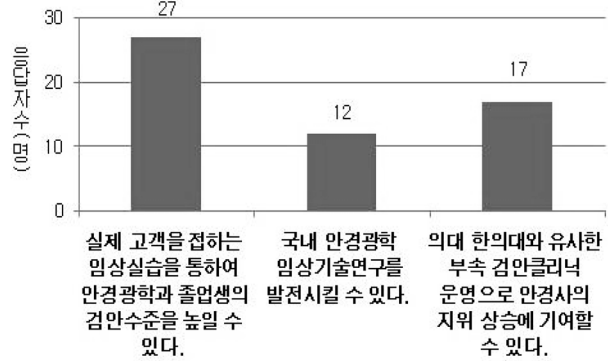


Fig. 12. Public opinion about the reason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re required.

원의 권익에 대한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안경광학과 재학생은 재학 기간 동안 수준 높은 임상교육을, 일반인은 부설 안경원으로부터 수준 높은 검안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대학 부설 안경원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고객을 접하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검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경사와는 달리 ‘의대 한의대와 유사한 부속 검안클리닉 운영으로 안경사의 지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17명 (33.3%)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결과로부터,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이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안경사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서는 대학 부설 안경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인원이 매우 적었고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2명만 응답하였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실시되지 않았다.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집단에서는 부설 안경원의 업무 허용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약 70%로, 현역 안경사 집단(45%)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이는 대학 부설 안경원의 영리활동에 의해 이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안경사 집단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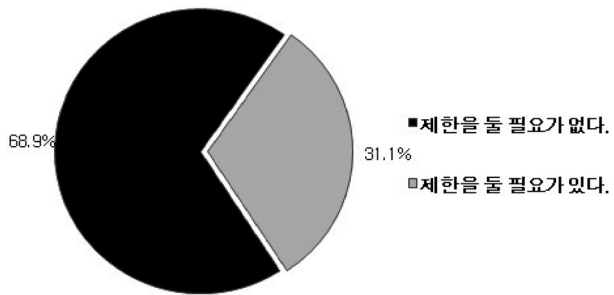


Fig. 13. Public opinion about service range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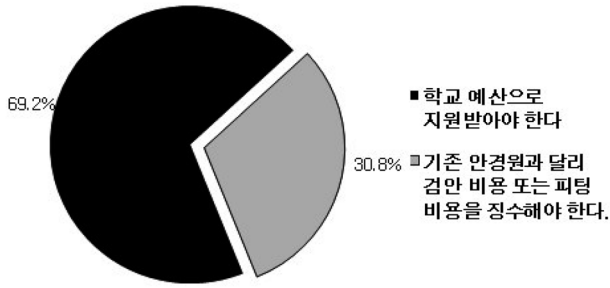


Fig. 14. Public opinion about how to obtain costs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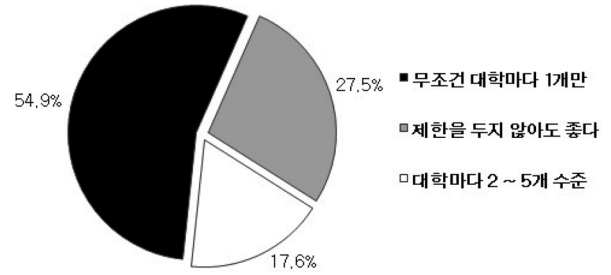


Fig. 16. Public opinion about how many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can be perm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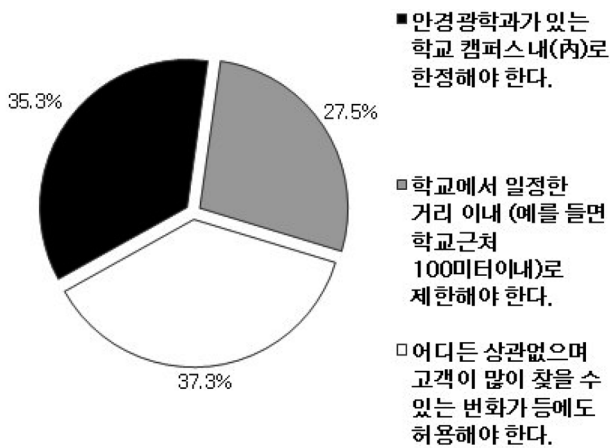


Fig. 15. Public opinion about spatial position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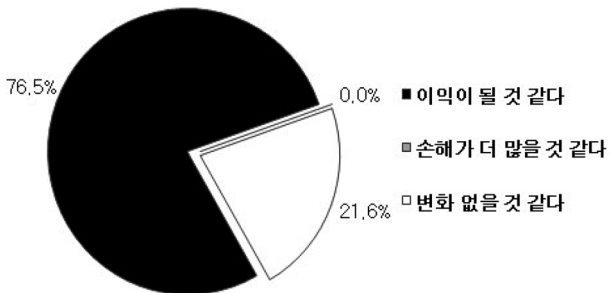


Fig. 17. Public opinion about effects of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on Korean eyeglasses society.

기존 안경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경테 판매나 조제가공비 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부설 안경원의 운영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은 안경사 집단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선진 외국처럼 검안과 피팅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집단에 상관없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대한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집단의 답변 결과는 Fig. 15와 같다. 대학 캠퍼스 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안경사 집단(76%)과는 반대로, '어디든 상관없으며 고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변화가 등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앞서의 설문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이 현역 안경사들에 비하여 기존 안경원 상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서도 부설 안경원의 위치를 캠퍼스 안이나 일정 거리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합치면 60%를 초과하여, 부설 안경원의 위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허용 개수에 관해서는 안경사 집단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학마다 1개만'이라는 답변이 가

장 많았지만, 그 비율은 안경사 집단의 92%라는 압도적인 응답률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약 5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차이도 부설 안경원이 기존 안경원의 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과 안경사 집단의 입장 차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속 집단에 무관하게 1개 대학의 부설 안경원이 안경원 체인처럼 다수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이 안경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는 '이익이 될 것 같다'의 응답이 안경사 집단의 경우(50%)보다 훨씬 높은 76.5%로 나타나서,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일반인 집단이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에 대해 훨씬 더 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손해가 더 많을 것 같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0%로 전혀 나오지 않아,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은 대학 부설 안경원에 대해 전혀 부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거나, 극소수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더라도 그 비율이 매우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고 찰

현재 한국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원인은 법률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⁵⁾은 법인의 안경원 개설을 엄격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체인 대학이 부설 안경원을 설치 운영할

근거가 전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안경원의 법인화 문제와는 별도로,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임상교육과 안경광학과 연구진의 임상연구를 지원할 목적을 갖는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을 허용하는 법률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논문의 서론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은 안경광학과의 교육과 연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관련 이익집단인 안경사, 안경광학과 재학생,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광학 분야에 비해 제도적으로 앞서 있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의 여타 보건의료 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법인화는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대학 등 비영리 법인의 부설 병원 개설은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러한 대학 부설 병원 또는 비영리 의료법인들이 해당 분야의 임상 교육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타 보건의료 분야의 전례에 비추어 안경광학 분야에서도 임상 교육과 연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경광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에 한하여 부설 안경원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안경광학 관련 이익 집단 전체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법률 개정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안경광학과의 임상교육 및 연구수준 향상과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또다른 대학 부설 안경원의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안경사와 안경업계 지위 향상 효과이다.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일반인 집단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이 안경사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리라는 응답비율이 1/3에 달했던 사실로부터, 대학 부설 한방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한의사의 위상 제고에 역할을 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대학 부설 안경원과 안경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특히 안경사 집단은 기존 안경원의 상권을 대학 부설 안경원이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운영형태는 가능한 한 기존 안경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법률 개정 과정 등에서 안경업계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1개의 안경광학과 당 1개의 부설 안경원만을 허용하며 그 위치를 소속 대학 캠퍼스 내로 제한하고, 업무 범위를 검안과 피팅에만 국한시켜 안경테 및

렌즈의 판매와 조제 가공을 제외하여 기존 안경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련 집단의 의견은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이 허용되었을 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등에 부설 안경원의 운영형태를 규정하는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숫자와 위치 제한에 대한 의견은 기존 안경원의 권익 보호와 대학 안경광학과의 임상교육 및 연구라는 양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업무 범위의 제한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다수의 응답자가 대학 부설 안경원의 운영비용은 해당 대학으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지만, 현재 입학생의 감소로 인해 한국 대학의 재정상황이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치 운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안경원과 달리 부설 안경원을 설립할 공간을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안경광학과 재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고객에 대한 검안을 수행함으로써 임상교육과 연구를 담당할 임상교수진의 인건비, 검안장비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영리 법인인 대학의 특성상 부설 안경원의 설치 운영이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나, 현재 의학분야의 대학부설병원의 운영형태처럼 최소한의 설립 운영비용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안경테, 안경렌즈, 콘택트렌즈의 조제가공 및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조심스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주제에 대한 경영·행정학적 연구 고찰이 후속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결 론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과 운영형태에 대한 관련 집단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결과, 다수의 의견이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 운영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학 부설 안경원이 대학 안경광학과의 임상연구와 교육 개선, 안경사와 안경업계의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부설 안경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과 각 대학 안경광학과의 설립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부설 안경원의 숫자, 위치, 업무범위 등에서는 기존 안경원과 달리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 때문에 업무범위에 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7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31-E00135).

참고문헌

1. 안가나, 유은정, “서울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 현장실습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논문집 제 6권, pp. 135-148(2004).
2. 미국 버클리 대학교 검안전문대학원 부설 eye care center 홈페이지. Available from: URL: http://spectacle.berkeley.edu/opt_txtpp/eyeclinic/eyecareclinic.html
3.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검안전문대학원 부설 university optometric center 홈페이지. Available from: URL: <http://www.sunyopt.edu/uoc/>
4.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검안전문대학원 부설 optometry services 홈페이지 Available from: URL: <http://greatvision.osu.edu/index.cfm>
5.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Available from: URL: <http://www.klaw.go.kr/>
6.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의료법”. Available from: URL: <http://www.klaw.go.kr/>

부 록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 내용 예제

대학 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 대학 부설 안경원이란?

안경광학과의 개설 되어있는 학교에 개설되는 안경원으로 기본적인 것은 의대나 한의대의 부속 병원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안경광학과의 임상 실습과 진료 기술 연구 발전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안경원을 말함. (이런 종류의 안경원이 개설 되려면 현행법상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로 하고 지금은 대학부설 안경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함)

1.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① 안경광학과 교수 (강사포함)
 - ② 안경사(원장)
 - ③ 안경사(직원)
 - ④ 안경사 (안과 검안사)
 - ⑤ 안경광학과 학생
 - ⑥ 기타 ()

2. 안경사 지위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검안사 등과 같은 선진화된 제도의 도입.
 - ② 대학부설 안경원등 교육제도의 다각화
 - ③ 대학교육의 내실화 (정규 수업의 강화)
 - ④ 안경사 스스로의 직업의식 함양
 - ⑤ 기타()
3. 대학 안에서 임상 실습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대학 부설 안경원을 개설하여 안경광학과 학생들의 임상 능력 향상을 도모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① 긍정적이다 → 4번으로 가주세요
 - ② 필요없다 → 5번으로 가주세요
 - ③ 관심없다 → 9번으로 가주세요
4. 대학부설 안경원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국내 안경광학 임상기술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 ② 실제 고객을 접하는 임상실습을 통하여 안경광학과 졸업생의 검안수준을 높일 수 있다.
 - ③ 의대 한의대와 유사한 부속 검안클리닉 운영으로 안경사의 지위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기타()

→ 6번으로
5. 대학 부설 안경원이 필요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 ① 안경원은 현재 포화 상태인데 대학마저 부설안경원을 설립한다면 더욱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가 있다
 - ② 대학도 법인이므로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한다면 안경원의 법인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③ 현재 거의 모든 대학 구내에 존재하는 구내 안경원 안경사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다.
 - ④ 기타()

→ 6번으로
6. 만약에 대학 부설 안경원이 허용된다면 업무영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 7번으로
 - ②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 9번으로
7. 제한을 둔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용하는 것 모두 체크)
 - ① 검안
 - ② 안경테 수리 및 피팅

- ③ 조제 및 가공
 ④ 안경테 및 렌즈 판매
 ⑤ 콘택트렌즈
 → 8번으로
8. 만약 상업적 목적으로 대학부설 안경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면(즉 기존 안경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상업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안경테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부속안경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예산으로 지원받아야 한다
 ② 기존 안경원과 달리 검안 비용 또는 피팅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③ 기타()
 → 9번으로
- * 9~11번은 공통 질문입니다.
9. 대학 부설 안경원이 생긴다면 그 위치에는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안경광학과의 있는 학교 캠퍼스 내(內)로 한정해야 한다.
 ② 학교에서 일정한 거리 이내(예를 들면 학교근처 100미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③ 어디든 상관없으며 고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변화가 등에도 허용해야 한다.
 ④ 기타()
10. 각 대학에 부설안경원 개설이 허가된다면 그 매장 숫자는 몇 개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① 무조건 대학마다 1개만
 ② 대학마다 2~5개 수준
 ③ 제한을 두지 않아도 좋다
11. 대학 부설 안경원이 생긴다면 안경계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은가?
 ① 이익이 될 것 같다
 ② 손해가 더 많을 것 같다
 ③ 변화 없을 것 같다

A Study About Necessity and Management Type of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Hyun Koo Kang, Un-seok Lee and Dal-Young Kim

Department of Visual Op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Received October 17, 2008: Revised November 5, 2008: Accepted December 9, 2008)

Purpose: We investigated opticians' and the public (including optometry students) opinions about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Methods:** Opinions about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their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services range, how to obtain their operation cost, and so on were asked to 50 opticians and 51 public people (including optometry students) by a questionnaire survey, being statistically analysed. **Results:** Most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 opinions about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nticipating better eye test ability of Koeran optometry graduates through improved clinical education. **Conclusions:** The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clinical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 Legal revisions and efforts of each university/college are required.

Key words: University/College Affiliated Optical Shop